
ISSUE 05

**Award
City Now
Artists & People
Collector
Masterpiece
2014 Exhibition
Art Tour**

artnow

**by
Noblesse**

오피가 돌아왔다

영국의 대표 팝아트 작가 줄리언 오피의 개인전이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그의 두 번째 전시를 위해 서울 사람을 묘사한 신작 '워킹 인 신사동(Walking in Sinsa-dong)'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는 이번 신작에서도 다양한 군중이 걷는 장면을 도식화해 묘사했다. 선 그리기를 최소화한 건 물론, 원색을 강렬히 배치해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식이다. 그가 포착한 신사동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쇼핑백과 커피를 들고 '오피식'으로 앞만 보고 걷는다. 작품 속 어떤 요소는 그림문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람의 미세한 디테일이 아닌 그가 걸친 모자, 안경, 스마트폰 등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오피의 작품은 '21세기 세련'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제갤러리의 전민경 디렉터는 "거리감과 친밀감이 동시에 작용하는 도시인의 독특한 정서를 예리하게 보여준다"고 오피의 작품을 평했다.

현재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대형 포스터와 버스 광고, 지하철과 공항의 환승 통로 등에서 오피의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앤디 워홀 이후 가장 대중적이고 예술적인 팝아트 작가로 꼽히는 줄리언 오피. 서울 시민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간결한 이미지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3월 23일까지 만날 수 있다.

1

4만5000여 장의 알루미늄 패널이
들어간 디디피의 외관

2

하늘에서 바라본 디디피의 전경

